

## 보도자료

2011년 11월 28(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김정원 과장(☎750-2450)  
뉴미디어정책과 최은호 서기관(☎750-2451) choieh@kcc.go.kr

# “방통위, 케이블TV의 지상파 HD방송 중단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금일 오후 2시, 지상파방송 3사(KBS·MBC·SBS)와 케이블방송사간 재송신 분쟁이 막판 타결에 실패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지상파 HD방송(KBS2·MBC·SBS)의 재송신이 중단되었다.

케이블방송사는 지상파 HD신호인 8VSB를 차단하는 대신 아날로그와 SD신호를 송출함으로써 지상파 방송의 시청 자체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1,100만) 중 DTV를 통해 지상파 HD방송을 시청하는 약 500만 가입자와 HD케이블 가입자 약 270만 등 총 770만 가입자가 화질 저하에 따른 불편을 겪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번 방송 중단 사태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 모레(11.30.) 개최될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의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양측간 재송신 협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도 나선다는 입장이다. <끝>